

News

비상시 '은행 배당제한' 제도적 근거 만든다

한겨레

금융감독당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준비
코로나 장기화 대비 자본확충 차원...당국 자체 요청에도 하나금융 배당...'도덕적 설득' 방식 한계에 도달 판단...미 연준 '스트레스테스트' 벤치마킹...은행 리스크실태 평가에 반영 유력

9월 말 시한 LCR 규제 연장될듯...은행권 '촉각'

뉴시스

'9월 말까지 두 달 가량의 시간은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은행권은 LCR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예의주시...다만 LCR 규제 완화 시한은 연장될 분위기
"유동성비율 규정은 시장에 충격 줄 수 있어서 85%까지 낮춰졌던 LCR을 급하게 100%로 올릴 수는 없어...다른 나라들도 6개월 만에 LCR 규제를 급히 정상화한 경우 없어"

주식·부동산에 요구불예금 10조 뺐긴 은행들 '비상'

머니투데이

지난달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23조3,725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8,040억원 줄어...요구불예금 잔액이 감소한 건 올 들어 처음
코로나19 영향이 극심했던 상반기엔 '갈 곳 잃은 돈'이 요구불예금에 몰렸던 것. 그러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각종 투자 자금이 빠진 것으로 분석

3년새 4배 성장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연내 첫 검사

조선비즈

금감원, 오는 4분기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 착수... 카카오뱅크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은 2017년 출범 이후 처음...리스크 관리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가능하면 연내 검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우에 손보사 700억원 손실... 9년 만에 '역대급 장마' 피해 재현되나

머니S

역대급 장마로 손해보험사들이 700억원대 손실... 8월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차량만 7000여대에 달해...011년 집중호우 때의 자동차피해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올해 피해규모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장마는 점차 소멸되는 분위기이지만 8~9월 한반도를 찾아오는 태풍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단체 실손→개인 실손 전환, 10명 중 4명은 보험사가 거절

조선비즈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회사 명의로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명의로 갈아탈 수 있게 됐지만, 막상 10명이 전환을 신청하면 4명꼴로 거절당하는 것으로 집계
보험사별 전환율은 KB손보(37.2%), 삼성화재(43.4%), 흥국화재(60%)가 평균보다 낮은 반면 한화손보(100%), 농협손보(100%) 기록

펀드손실 알고도 안알리는 금융사 제재

매일경제

사모펀드 사태처럼 펀드 가입자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인지됐는데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공정 영업 행위에 포함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동학개미 빚투 사상 첫 15조원 돌파...바이오·엔택트 '베탕'

이데일리

금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전 거래일보다 2,391억원 증가한 15조538억원으로 집계...15조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신용거래용자가 전 거래일보다 1,499억원 증가한 7조1,60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코스닥 신용거래용자는 891억원 증가한 7조8,935억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